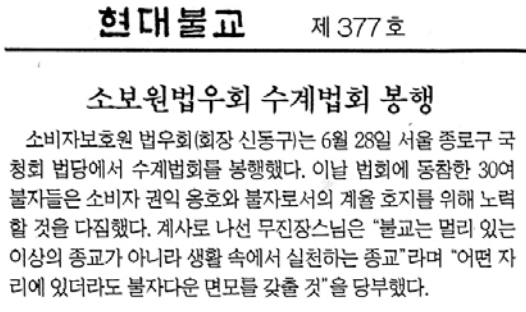
소보원법우회 수계법회 봉행

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청회 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30여 불자들은 소비자 권익 옹호와 불자로서의 계율 호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계사로 나선 무진장스님은 "불교는 멀리 있는 이상의 종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라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불자다운 면모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은평불심회 정년퇴직자들 위로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6월 27일 열린 2002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에서 15명의 퇴직자들을 위로했다. 청소행정과 이병옥, 지적과장 서상원 등 2명의 불심회원이 포함된 퇴직자 모두에게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책을 선물했다. 불심회는 매년 두차례 열리는 정년퇴임식때마다 퇴직자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증정해왔다.



풍경소리 사무실 이전·현판식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대표 덕신)는 3일 종로구 견지동 110-8번지 길상원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풍경소리는 청계사 성형스님, 옥천암 성전스님, 현등사 초격스님을 부회장에 위촉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친환경 삶의 지혜 배웠어요"

철도청불교단체협, '발상의 전환' 주제 여름수련회

'산의 형세를 해치지 않으면서 더불어 조화로운 사찰환경을 조성했던 선조사 스님들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6월29~30일 경북 영천 은해사, 철도불자들은 복을 구하려는 기복신행을 탈피해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수련회를 개최했다. 기도, 참선 등과 함께 사찰의 생태와 문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배운 1박 2일의 산사 체험. 철도불자들은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29~30일, 영천은해사에서 열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사찰 주변생태' 설명을 듣고있다.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의 이번 수련회는 산사에서의 예불, 발우공양, 기도 등 불교 수행의식 체험은 물론 수련회의 틀을 깬 생태답사, 암자 순례 등 프로그램이 포함돼 1백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환경친화적 불교의 가르침' '사찰 문화의 이해' 강의는 견문의 폭을 한층 넓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그냥 불교가 좋다는 막연한 생각을 뛰어넘어 불교가 이제는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얻은 확신 때문입니다." 참가자 윤석오 불자(부산철도차량정비창)는 수련회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 하나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체험하며 불교문화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되새겼다. 은해사 주변의 생태 답사 시간에는 사찰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공존하는 현장을 배우기도 했다.

기도·참선 함께 생태·생명존중 체험
참가자들 "가정·직장서 실천" 한목소리

철불협은 수련회 이후 참가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친환경적 사상을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안배했다. 소비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불자들의 삶을 생태적 삶으로 변화시켜 부처님 사상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98년 철불협 창립 이후 매년 실시해 온 수련회의 틀을 깨고 산사와 자연, 환경을 소주제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철도불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철도청내 포교 활성화와 불자회간 교류 확대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철불협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확충, 미창립 계열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 수익사업 전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찬연 사무국장은 "이번 수련회는 참가한 회원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했던 불교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철불협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불협은 6월 25일 전체 회장단회의에서 정동진 전 회장의 후임으로 이용일 차량본부장을 새 회장에 선출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전본사 반야회 새회장에 이인규씨

전체회의서 선출, "계열사 불교회 창립 지원"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회장에 이인규(사진) 전력거래소 계통기술처장을 선출하는 한편 궐석중인 임원을 선출하고 반야회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인규 회장은 20여 전력계열사 연합체인 전력인불자연합회장직을 겸임한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홍보부장에 전자통신처 이정한 부장, 사무차장에 송변전처 이명희 과장 등이며, 김호표 사무국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이인규 신임 회장은 "반야회는 한국전력이 분사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분사된 각 회사에 불교 모임이 구성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전력인불자들의 결속력을 키워나가겠다"며 "서인천화력 등 회원은 활동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불자회를 창립하지 못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내 경찰서 불교회 창립 지원

전남경찰청불교회 창립1돌 기념법회

광주·전남 지역의 경찰불자들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천승범)는 20일 오후 3시 광주 향림사에서 열리는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순천, 나주, 해남경찰서 등 관내 경찰서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같이 결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창립 경찰서의 불자 현황파악과 지역사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연합법회를 열어 경찰불자들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법회와 다과회로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쳐온 11명의 경찰불자에게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의 표창패와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천승범 회장의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한다.

박건희 총무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위시한 관내 경찰서 불자들은 지난 1년동안 꾸준히 신행활동을 펼쳐 신심깊은 불교회로 자리잡아 왔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호남지역의 약한 불교세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내 16개 경찰서 불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창립 이후 1년동안 향림사와 원각사에서 조계종 원로 천운스님, 담양 정토사 주지 한탑스님 등을 모시고 매월 두차례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등 직장불교회와도 활발히 교류하는 등 모범적인 직장불교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과천청사 공무원불자련 20일 영천서 여름수련회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나승렬)는 20~21일 경북 영천 보현자연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과천청사 공무원 불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예불과 정근, 108배 등 정진과 신행토론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회원들의 우의도 다진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부처님마을의 회원과 가족들이 동참해 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영천 거동사와 정각리 삼층석탑 참배, 보현산 천문대와 임고서원 답사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소쩍새마을 장애인 위문

서울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권태중)는 6월 30일 장애인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을 방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 농장 일손돕기, 잡초 제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축구공, 기저귀, 건어물 등 위문품과 전국금융단불교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단불교회 임원과 불교행우회 회원 20여명이 동참했다.

우리 모임에선

청주운불련 지역 독거노인 목욕봉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청주지역회(회장 류승준)는 10일과 24일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펼친다. 목욕봉사에는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다. 청주 운불련은 매월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목욕,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은행불자회 '알기쉬운 불교의식' 강좌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11일 오후 7시30분 본점 501호 강당에서 '알기쉬운 불교의식'을 주제로 강좌를 갖는다. 불교의식에 깃든 의미와 생활 속에서 쉽게 집전할 수 있는 의식을 배우는 이날 강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동두천시청 삼보회 용화스님 초청법회

경기도 동두천시청 삼보회(회장 장석원)는 18일 오후 6시30분 동두천 보문사에서 중화사 주지 용화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 회장을 역임한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참석, 삼보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대한불교진각종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佛法은 體요 世間法은 그림자라" 1, 2부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회당 다큐멘터리는 회당대종사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를 다루되 구도역정과 일화, 회당의 불교개혁론, 진각밀교 등이 복합적으로 1, 2부/1set로 구성되었으며, 비 공개된 자료와 함께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입문의처 : 02)942-0127 (해인서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
www.hoedang.or.kr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화 체험기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중품·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02)722-0292~3